

연말연시 서울로 미술관 기행을

'결정적 순간'으로 잡아낸 20세기 사진미학의 거장 앙리 카르티에 브 레송의 10주기 회고전인 '영원한 풍경' 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에서는 처음 공개되는 작품을 포함해 카르티에 브레송 생전에 제작된 오리지널 프린트 작품 259 점이 전시된다. 카르티에 브레송은 '현대 포토저널리즘의 아버지', '사진미학의 교 과서', '전설적인 사진작가'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작가로 작품을 통해 근대 사진 미학의 원천과 작가의 사진철학, 예술성 을 만날 수 있다.

국립현대, 정물의 대가 조르조 모란디 특별전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탄생 85주 년을 맞아 일대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내년 3월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뷰티 비욘드 뷰티'를 주제로 개최되며 인간 오드리 헵번의 일생을 대하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했

오드리 헵번 출연 영화 의상, 소품, 미공개 포스터, 사진 등 1000여점이 전시되며, 특히 영화 '로마의 휴일'로 수상한 오 스카 여우주연상 트로피와 영화 촬영에 사용된 베스파 원본, 오드 리 헵번의 자필 레시피북과 식탁세트, 가족들과 찍은 8mm 홈비디오 와 스냅 사진 등이 공개된다.

근 · 현대 서양미술사를 이끈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내년 3월12일까지 열린다. '앵그르에서 칸 딘스키까지'전은 필립스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유명 결작들을 한국에 최초로 선보이는 전시로, 파블로 피카소를 비롯하여 프란시스코 호세 데 고야, 에두아르 마네, 에드가 드가, 폴 세잔, 클로드 모네, 빈센트 반 고흐, 바실리 칸딘스키, 조지아 오키프, 잭슨 폴록 등 서양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68명의 예술가들이 그린명화 85점이 전시된다.

태양 광선 아래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모습을 색채로 표현한 인상파 화가들에 게 바다와 어우러진 노르망디의 아름다운 풍경은 무한한 영감을 안겨줬다. 모네와 부댕이 그린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노르망디는 어떤 모습일까. '인상파의 고향, 노르망디'전이 내년 2월15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프랑스 30여개의 미술관들이 협력해 준비한 이번 전시에서는 '인상파 거장' 클로드 모네를 비롯해 외젠 부댕, 라울 뒤피등 화가들이 노르망디를 배경으로 탄생시킨 풍경화, 판화, 사진 100여 작품을 만날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은 한국·이탈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내년 2월25일까지 '조르조 모란디-모란디와의 대화'전을 개최한다. 이탈리아 출신 화가인 모란디는 병·항아리·상자를 그린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정물화를 통해 20세기 형식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전시에는 이탈리아 볼로냐 모란디미술관 소장 품 가운데 작가의 전성기(1940~1960)에 제작된 유화 와 수채화, 판화, 드로잉 등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또 모 란디와 같은 시대를 산 도상봉, 오지호, 김환기, 박수근, 황규백, 김구림, 최인수 등 한국작가들의 정물화를 비교감상할 수 있다.

서기 79년 8월24일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역사 속에 사라져버린 도시 폼페이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9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로마제국의 도시문화와 폼페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폼페이에서 출토된 조각품과 장신구, 벽화, 캐스트 등 298점이 선보인다.

새들이 있는 정원을 그린 그림, 신화 속의 의미 있는 장면과 실제 기둥 같은 건축적인 양식이 담긴 그림 등 폼페이 사람들의 뛰어난 조형 감각을 볼수 있는 대형 벽화와 도시 곳곳에 세워진 신들의 조각상과 동물 조각상, 젊은 여인의 팔을 장식한 팔찌 등을 만날 수 있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한국화대전 대상

성미영씨 '축제'

型型型型型型



'제26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에서 '축제'(사진)를 출품한 성미영(여·51)씨가 영예의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차지했다. 상금은 500만원이다.

광주시와 광주미술협회는 지난 4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제26회 대한민국 한국화대전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8명 등을 비롯해모두 209점(특선 50명, 입선 148명)을 입상작품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상작은 서재경(24)씨의 '모순'이다.

우수상 수상작에는 김유나(여·25)씨의 '가을-Fall', 김유미(여·38)씨의 '가창계곡의 겨울', 김지호(23)씨의 '힘과조화', 박성련(72)씨의 '가을사랑', 양세미(여·21)씨의 '수영장 시리즈', 윤준성(29)씨의 '쌓이는 추억속에 깨지는 기억들', 정정숙(여·57)씨의 '가을녘…', 현범진 (19)씨의 'Silence'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한국화대전에는 지난해 보다 66점 증가한 모두 348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특히 올해는 심사위원 전원합의제가 아닌 비공개 채점제를 도입해 심사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오후 3시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리며, 입상작들은 $19 \sim 24$ 일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문의 062-222-8053.

.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DDP, '사진 거장' 카르티에 브레송 회고젠

한가람미술관, 피카소·고흐·마네·드가 한곳에





오드리 헵번



조르조 모란디 작 '정물'



브레송 작 '생 라자르역 뒤에서'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www.geumsoojang.com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충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